

‘급진적 여성주의’ 세미나를 제안하며...

급진적 여성주의를 첫 커리로 제안하고자 함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용어, 선언적 발언등을 명확히 하고 그 것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직관을 체계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선거를 되돌아 보자.

우리 선본의 으뜸 구호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였으며, 컨셉으로 “여성임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된다.”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여성주의란 페미니즘을 한역한 것으로 최근 여러 여성학자들이 기존의 페미니즘이라는 말 대신 여성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여성주의란 여성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컸다. 실제로 페미니즘과 여성주의는 어감뿐 아니라 의미적 반향의 크기도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주의라고 말하는 게 도발적이라고 여겨지거나 ANNALS에서는 영문표기로 feminism대신 womanism으로 표기할 바 있다. 일단 여기서 저장(save)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여성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이다.

컨셉으로 잡았던 여성임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 역시 이와같은 맥락에서에서 다루어진 보다 구체적이고 선언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주의’에 대해 직관적 동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논리적 치밀함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자. 이렇듯 논리적 견고함의 필요는 이 세미나를 제안하는 처음의 이유이다.

두 번째는 급진적 여성주의가 앞으로의 전망을 풍부하게할 자양분이라는 점이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Radical feminism으로, 영어의 rod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직역하면 근본적 여성주의가 될 것이다.

7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급진적 여성주의 -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은 이 것의 확장 동력이 되었다. - 는 각각 다양한 입장들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 이슈와 내용의 발전이 진행중이다.

서로를 향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가리켜 급진적 여성주의라고 함은 여성의 억압이 모든 억압중의 가장 근본적임을 동의하기 때문이다.

초기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당시 6.70년대 미국의 신좌파 운동에 관여했거나, 지지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진보적 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성차별과 성역학분리가 유지되고 있음에 대한 쓰디쓴 깨달음 - 진보적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청소나 차심부름 등 가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맡는 일만 주어질 뿐 주요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운동권 여학우들이 선전국일들을 담당하는 것과 유사한가? - 을 얻고 여성들의 독자적 세력화 형성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들의 질문은 왜 진보세력들조차도 가부장제와 여성억압의 현실을 변혁적으로 사고하지 않는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역사시대 -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 이래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영속 되어져 왔음을 주목한다.

그들은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두게하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일상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여성억압의 현실을 가시화시키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가부장제 이론으로 완성하였다.

급진적 여성주의 이론은 종종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비판받곤 한다. 대표적으로 Sulamith

Firestone의 “성의 변증법”이 그 예로서 파이어스톤은 여성억압은 여성의 재생산기능에서 유래하며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급진적 여성주의는 각 이론가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론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 이론이 제기되어진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입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급진적 여성주의의 큰 성과는 1세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평등권 확보를 통해 - 이들은 자유주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여성의 존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여성 해방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에 반해 공/사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있는 자유주의가 은폐하고 있는 일상적 여성억압의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래서 성, 매춘, 포르노, 언어, 출산등을 이슈화하였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피지배 집단은 여성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차지한 성적 권력이 최초의 권력이며 이 것은 계급과 인종을 초월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이론을 통해 인간관계의 질서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시작에서 지배/피지배, 억압, 착취의 관계로 확장되었으며, 여성억압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해 전사회적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들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 지배되어지기 이전의 사회질서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리고, 여성적 특질의 해석을 통한 상상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여성성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가부장제에 의해서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어져 왔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여성의 자아 정체성의 문제이면서, 기존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면서, 가부장제 전복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성성을 회복해내고 운동의 전략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집단을 형성하고 - 여성적 집단 속에서 권위적 시선에 의해서 재단 되어지지 않는 여성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 일반적 여성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자매애적 연대를 추구한다. 레즈비언 공동체는 이와같은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특히 이성애주의가 낭만적 사랑을 빌미로 결혼을 통해 여성을 사적영역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레즈비언리즘은 여성주의 이론에서 영향력있는 이론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Mary Daly인데, 그녀는 남성적 권위의 상징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자매애와 그 자매애의 우주적 확장을 말한다. 이후 그녀는 “Gyn/Ecology”등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남성적 재단을 비판하며, 가부장제를 비난하고 조소하며 여성적인 문화와 언어를 재규정/새로이 창출을 시도해왔다. - 그녀는 마녀나 노파의 이미지를 손상되지 않은 자연적 여성의 이미지로 바꾸어 말하며, 그녀의 “Wickidary”라는 사전은(wicked+dictionary) 이러한 작업의 결과이다.

긍정적 여성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해서이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출산기능은 여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탄생이라는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생래적으로 터득하게 하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대가가 없이도 도움을 주고 받는 인간 관계가 가능함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상정하는 것과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성인 남성이며 자신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적영역의 존재는 보조적인 것이다.

한편 캐롤 길리건은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달리 ‘보살핌의 윤리’가 있음을 말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성의 근간으로서 여성들의 모성애와 모성애적 관계 - 가부장제가 성역할에 따라 할당한 모성이 아니다. -를 구체화하고 한다.

여기 까지로 급진적 여성주의에 대한 소개를 빈약하게나마 마친다.

급진적 여성주의를 제안하는 첫 번째 이유를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성주의와 여성성 자체를 주제로 삼게 될 것이다.

주교재로는 1회 :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메리 데일리, 이대출판부

2회 :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아드리엔느 리치, 평민사

보조 교재는 "페미니즘 사상"중 4.5장, 로즈마리 퉁, 한신문화사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중 3장, 앨리슨 재거, 이론과 실천

"다른 목소리", 캐롤 길리건

"성의 변증법", 솔라미쓰 파이어스톤

"성의 정치학", 케이트 밀레트

를 참조 바란다.

급진적 여성주의 이후에는 프랑스 페미니즘을 다루게 될 것이다.

프랑스 페미니즘이 타자로서의 여성과 여성성에 주목하고 이를 남근 중심적 사회로부터의 대안임을 말하지만 급진적 여성주의가 여성 일반의 공통성과 자매애를 인정하는 반면, 프랑스 페미니즘은 여성들사이의 일반이란 남성적 획일화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여성들 사이에세의 차이, 여성들 각각의 다른 경험에 의한 다른 정체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프랑스 페미니즘에서는 차이에대한 인정이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도 외면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적 여성주의와 프랑스 페미니즘은 다른 이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급진적 여성주의에서 제기한 여성성 개념의 발전과 확장으로서 프랑스 페미니즘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